



고진영

고진영 vs 박성현, 우즈 vs 미겔슨 골프 팬들 가슴 뛰는 '주말 빅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골프 투어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모처럼 골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빅 매치'들이 연달아 펼쳐진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14일부터 나흘간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을 무관중 경기로 개최, 박현경(20)을 새로운 '메이저퀸'으로 탄생시킨 데 이어 24일부터 세계적인 남녀 톱 랭커들의 이벤트 매치가 줄을 잇는다.

먼저 24일 오후 2시 인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 경기가 열린다.

고진영(25)과 박성현(27)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현역 여자 선수 최강자들이다.

현재 세계 랭킹은 고진영이 1위, 박성현이 3위다. 박성현이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고 고진영은 지난해 올해의 선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정교한 아이언샷이 주목적인 고진영과 특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의 박성현이 벌이는 이날 빅매치는 상금이 걸린 각 홀에서 타수가 낮은 선수가 상금을 가져가는 '스킨스 게임' 형식으로 열린다.

총상금은 1억원이며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지정한 기부처에 자선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이 경기는 일반 갤러리의 입장은 허용하지 않

으며 고진영과 박성현 두 선수 간에도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우즈

미겔슨

며 고진영과 박성현 두 선수 간에도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4시에는 타이거 우즈와 필 미겔슨(이상 미국)이 벌이는 '더 매치 : 챔피언스 포 차리티(The Match: Champions for Charity)'가 미국 플로리다주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일생의 라이벌'로 불리는 우즈와 미겔슨은 2018년 1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일대일 빅매치'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연장전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미겔슨이 승리, 상금 900만달러를 독식했고 이번엔 둘의 빅매치 '2탄'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에는 미국프로풋볼(NFL)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턴 매닝과 톰 브래디가 함께하는 팀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즈가 매닝과 한 편을 이루고, 미겔슨은 브래디와 호흡을 맞춘다.

이번 대회를 통해 1000만달러(약 123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한다.

이어 25일 밤 8시에는 L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십이 벌이는 스크린 골프 대결이 시작한다.

스크린골프 전문 기업 골프존이 마련한 '골프존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는 박인비(32)와 유소연(30), 리디아 고(뉴질랜드),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가 출전한다.

이 대회는 대전의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의 월드 골프 빌리지 내에 있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동시에 열린다.

한국 시간은 25일 밤 8시, 미국 현지 시간은 같은 날 오전 7시다. /연합뉴스



박성현

회장 사재 털어 대회 만든 KPGA 7월 2일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가 오는 7월 마침내 2020년 시즌을 시작한다.

KPGA는 오는 7월 2일부터 나흘 동안 경남 창원시 아리마르 컨트리클럽에서 우승종합전설 아라미르 CC 부산경남오픈(이하 부산경남오픈)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KPGA코리아투어는 부산경남오픈이 시즌 개막전인 셈이다.

KPGA코리아투어는 부산경남오픈에 이어 군산 CC오픈(7월 9~12일), KPGA오픈(7월 16~19일), KPGA선수권(8월 6일~9일), GS칼텍스 매경오픈(8월 중), 일동레이크클럽오픈(8월 27~30일), 신한동해오픈(9월 10~13일), 아이에스산업 개발오픈(9월 17~20일),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 이셔널(9월 24~27일), 제네시스 챔피언십(10월 8~11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11월 5~8일) 등

이번 시즌에 모두 11개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KPGA오픈, 일동레이크클럽오픈, 아이에스산업개발오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올해 신설된 대회다. 특히 KPGA오픈은 구지철 KPGA 회장이 총상금 5억원과 대회 운영비 약 3억원 등 8억원을 사재로 충당해 만들었다.

하지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SK텔레콤오픈,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한국오픈 등 굵직한 대회가 여럿 취소돼 아쉬움은 여전하다.

구지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을 포함해 많은 관계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다려 준 팬 여러분과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 방역에 최대한 힘써 재발표된 일정에 맞춰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LPGA 투어 8월엔 재개될까... 연말 시상은 없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월 이후 중단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부분별 시상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LPGA 투어는 21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시즌에 대한 시상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LPGA의 주요 수상 부문은 올해의 선수, 신인상, 최저타수상 등이다.

또 LPGA 투어는 2020시즌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2021시즌에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시즌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큐 시리즈 올해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LPGA 투어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4개 대회만 마쳤고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10월 2일부터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어 클래식 이 날 취소되는 등 총 10개 대회가 취소됐다.

원래 33개 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의 취소가 나오지 않아야 23개 대회를 치를 수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7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개막하는 마라톤 클래식으로 시즌을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마라톤 클래식이 열리는 오하이오주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외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마라톤 클래식 대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 골프채널과 인터뷰에서 "무관중 경기로는 대회를 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일 마라톤 클래식이 취소되면 다음 일정은 8월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예비 챔피언십, 스코틀랜드오픈, 브리티시오픈 등 프랑스와 영국에서 열리는 대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유럽 대회들마저 날아가면 그다음 대회는 8월 28일에 개막하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이다. /연합뉴스



자동차경주 재개 코로나19로 멈췄던 미국 최대 자동차경주 나스카(NASCAR·전미 개조자동차 경주협회)대회가 재시동을 걸었다. 2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달링턴 레이스웨이에서 무관중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레이서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달 코치였던 토니 나달 "페더러 보다 조코비치가 더 까다로워"

2017년까지 라파엘 나달(34)의 코치를 지냈던 그의 삼촌 토니 나달(59·스페인)이 로저 페더러(39·스위스)보다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를 상대하는 것이 더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토니 나달은 최근 유로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페더러가 요즘 시대에 최고의 선수"라고 칭찬하면서도 "하지만 상대하기 더 까다로운 쪽은 조코비치"라고 말했다.

토니 나달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카인 나달의 코치로 일하며 나달의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19회 가운데 16회를 합작한 지도자다.

토니 나달은 이번 유로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페더러는 정말 훌륭한 선수고 나는 그의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며 "내가 만일 라파엘의 코치나 삼촌이 아니었다면 항상 페더러가 이기기를 응원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페더러의 플레이 스타일은 우아할 뿐 아니라 매우 효율적"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하기 어려운 쪽은 조코비치였다"며 페더러와 조코비치를 비교했다.

현재 세계 랭킹은 조코비치가 1위, 나달이 2위며 페더러는 4위에 올라 있다.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는 페더러가 20회로 가장 많고, 나달이 19회, 조코비치는 17회 순이다. 토니 나달은 "내 얘기는 페더러와 조코비치 가운데 누가 더 좋은 선수냐를 판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만 우리는 페더러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조코비치와 경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며 "아무래도 조코비치보다 페더러와 경기가 더 나았다"고 평가했다.

나달은 페더러와 상대 전적에서 24승 16패로 앞서 있으나 조코비치를 상대로는 26승 29패로 열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위대한 쇼맨
12월 23일, 무지막의 감격이 무에서 뿜어진다.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오페라지: 비밀의계단
- 3관 카페 벨에포크, 마이 스파이, 나는보리 라스트 폴 메저
- 4관 더 플랫폼
- 5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 9관 비커밍 제인, 루키스 나의 청춘은 너의 것
- 7관 씨네커플: 날씨의 아이, 레이니 데이 인 뉴욕 호텔 레이크
- 8관 씨네커플: 위대한 쇼맨, 하이큐!! 또 다른 도전 길러의 보디가드 무삭제 특별판 나의 청춘은 너의 것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2020.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